

그들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죽음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죽고 싶지 않아. 왜, 왜냐면,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생각 좀 해볼게, 그래.

꿈을 꾸었어. 무슨 꿈, 잘 기억은 나지 않아. 꿈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맞아. 잘 생각해봐, 그럴게. 이번 꿈은 유난히 생생했거든.

내가 죽었어, 꿈에서, 응 꿈에서. 어떻게, 차 사고가 있었어. 너 운전 안 하잖아, 그렇지. 내가 운전한 차가 아니었거든.

친구였던 것 같아. 운전자가, 응. 무슨 차였는데, 작은 차였어. 낮고 작은 차.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 차는 분명 작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여섯이었어. 이걸 기억이 나. 이상하게도 차 바퀴가 말랑말랑했어. 마치, 쿠션처럼, 풍선처럼. 금방이

라도 터질 듯이, 출발 전부터 우린 위태로웠어.

어디로 가고 있었어, 그건 잘 기억이 나질 않아. 뭘 먹으러 가고 있었던 것 같아. 여행길 같기도 했어. 근데 목적지는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다는 거야. 이유도 모른 채로, 이유도 모른 채로.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만 같았어. 도로마저 춤추듯 휘어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 죽었어, 응, 갑자기, 갑자기, 난 죽어 있었어. 순식간이었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응 아무것도. 하지만 난 죽었어.

그리고, 그리고 난, 어둠 속에서 깨어났어. 현실로, 현실로.

죽고 싶어. 왜, 왜냐면,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서 그래.

무슨 뜻일까. 고민해봐, 알았어. 생각해볼게.

나와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워, 너와 있는 시간이 행복해. 그런데, 그런데 왜냐면, 응, 그냥 그래.

좀 더 고민해볼게. 흥미롭네, 그렇지.

이 순간은 다신 돌아오지 않아, 그렇지, 돌아가면, 이 시간으론 다신 돌아올 수 없어.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걸까. 아니면 고정불변한 시간 속에 우린 그저 한낱 점들에 불과할까. 우리가 걸어가면 시간은 따라오는 걸까. 아니면 시간의 파도 속에 우린 휘몰아치고 있는 걸까.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올까. 어렵네, 어렵지.

어제 우리가 본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본 것들이 맞을까. 아니면, 아니면, 시간이 조작한 어제의 기억들을 우린 그저 영화를 보듯이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할까.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이 의심스러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시간이 우리의 편이라면 왜 우리는 어제의 기억들에 고통스러워야 하지. 지난 기억들이 지금의 내가 정말로 행해온 일들이라면, 응, 왜 우린 지난날의 자신을 혐오하냐는 말이야.

기억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시간에 전가하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난, 넌, 믿고 싶지 않아.

무슨 이야기 중이었지, 죽고 싶다고, 맞아. 난 죽고 싶어. 지금 이 순간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도, 지나면 날 괴롭힐 테니.

나와의 시간이 고통스러워, 아니 행복해. 지금은.

또다시 꿈을 꾸었어. 요즈음 자주 꾸네, 그러게.

나 때문에 죽고 싶어졌어, 네가 한 이야기 때문만은 아냐. 사실 잘 모르겠어. 그저 생각이 많아졌을 뿐이야. 언어는 폭력적이니까, 언어는 무심하니까. 너도 생각하던 것들이었나 보네, 아마도.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겠지.

무슨 꿈이었어, 무슨 꿈이었냐면, 또다시 죽었어, 응.

넌 죽으면 어떻게 될 거 같아,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가, 다들 죽고 나서의 우리에게 대해 논하지. 당장 거리에만 나가도 신을 믿지 않으면 죽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 외쳐대니, 맞아. 하지만 파스칼의 원칙이란 것도 있잖아. 신이 있든 없든 신이 있다면 믿는 편이 이로울 테니 믿겠다 논리. 하지만 난 안 믿어, 나도. 신이 있다면 적어도 죽고 싶진 않겠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길 바라. 그저 무이길, 맞아. 하지만 이것도 바람에 불과하겠지, 맞아, 그저 한낱 인간들이 원하는 모습 중 하나일 뿐. 그 이후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내가 꾸는 꿈은 그저 꿈이길 바라. 죽고 나서도 난 깨어 있었거든, 어땠어, 고통스러웠어. 시험에 드는 기분이었어. 나를 포함한 여섯 명은 죽자마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새하얀 방에 갇혔어. 정확히는, 응, 갇혀 있도록 권유받았어. 수많은 의자만이 존재하는 그 방에, 응, 앉아서, 응, 끝없이 기다리기만 하라고. 이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고통받을 거라고, 거부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는 모든 것들을. 돈이 없어 먹어야 하는 하찮은 라면 한 봉지도 그곳에선 사치였어.

넌 어떻게 했어. 그곳에서, 난 가만히 있었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나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 죽었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미치도록 답답했어. 현실에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지, 그곳은 달랐어. 어떻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어. 나의 죽음을 알게 된 어머니와 동생. 너마저도, 내가 너의 꿈에 나왔어, 응.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뭐냐면, 응. 분명 난 꿈에서 죽음을 경험한 건데. 근데, 죽음이 두려워졌어. 그래서 아까 죽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한 거구나, 맞아. 전에는 죽음을 갈망한 것 같아.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길 바라 왔으니까.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너를 괴롭히던 기억들이 사라질 거라고, 맞아. 그런데, 그런데, 너무나도 생생한 죽음을 꾸고 나니까, 생생했구나, 그 죽음이 두려워졌어. 슬

떠하는 네게 말 한마디 걸 수 없다는 사실이, 내가 슬퍼했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백야가 날 집어삼키는 태도가. 한없이 두려워졌어.

어쩌면 꿈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 어떻게, 저번에 또 꿈을 꾸었거든. 그때도 죽었지만. 내가 타고 있었던 배는 수로가 갑자기 좁아지자 어느새 커다란 버스로 바뀌어 있었어. 그 길마저 좁아지자 버스는 자전거로 바뀌었어. 그때 너와 함께였어. 나를 뒤에서 안고 있었어, 그랬구나. 울타리조차 없는 좁고 높은 길로 묘기 하듯 자전거를 타던 너와 나는 별안간 방향을 틀었어. 그리고 별안간 떨어지는 느낌이 남과 동시에 난 잠에서 깬어. 또다시 현실, 난 너를 안고 있었지. 슬프게도, 슬프게도.

재밌네, 그렇지.

달이 참 밝다. 오늘 죽을까, 그럴까,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처럼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정말 이 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모르지. 그렇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왜, 언젠가 이런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정말 시간이 앞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앞으로 흐르니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 정말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라고 생각해.

오늘의 기억은 어제 우리의 기억마저 휘방 놓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밝은 달과 밤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광경보다도 아름다워. 그럼 지금의 기억은 내 과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네, 넌 지금보다 아름다운 순간이 우릴 찾아올 거라 기대하니.

혹시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시간에 대한 논박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그래 모두.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하고 닿을 수도 없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우린 모두 과거에 놓인 사람들이겠네, 과거는 항상 고통스럽지.

혹은 우리가 그저 그 누군가가 그려놓은 인생의 패턴을 반복하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안도가 되네, 그와 함께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

밤이 늦었다. 밤이 늦은 게 맞을까, 우리가 늦어 버린 걸지도 몰라.

죽음이 미치도록 두려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에는 죽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젠 내가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만 같아.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흔히들 말하지. 죽으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 죽고 싶지 않다고. 혹은, 죽으면 고통받을 것 같다고, 맞아.

그것과는 달라. 어떻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지. 되려 안도감이 들었어. 하지만 이젠 두려워. 미치도록 두려워.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서 하는 소리야.

나도 꿈을 꾸었어. 무슨 꿈, 잘 기억나지 않아. 꿈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그렇지.

난 이제 죽음을 그리워하게 되었어. 마치 회전문의 좁은 문틈이 나를 지나쳐 버린 것처럼, 정답을 봤던 것처럼, 다신 돌아올 거 같지 않아. 죽음이란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절대 아니지.

죽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그들은 꿈을 꾸었다, 그들은 꿈을 꾸었다.